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마련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도 가능...15일부터 적용 약 직접 수령...의사 판단에 비대면 거부 가능

오는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등이 가능해진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파악한 현장 의견 및 민원 등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휴일과 야간에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로 상담만 가능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상담만 하던 것에서 나아가 약 처방까지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야간·휴일 기준은 가산 수가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야간 진료에 해당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 기준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후까지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연례와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약 처방

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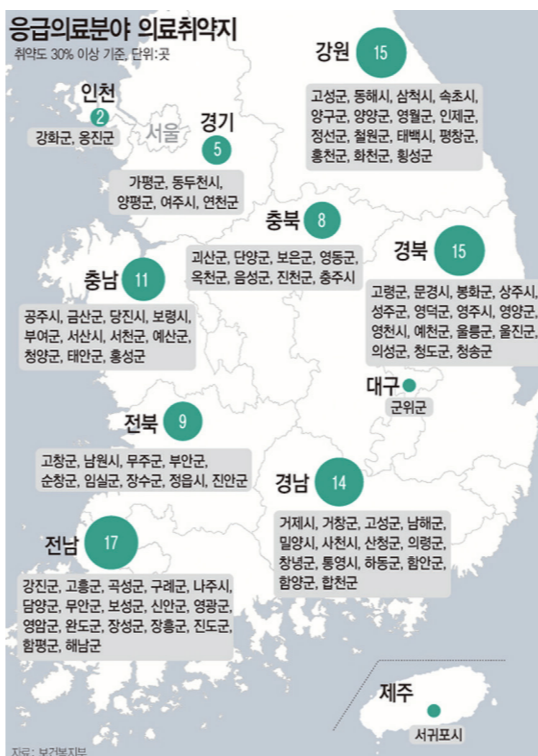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은 약 2만4700개가 있는데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이중 약 39%다.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43%에 해당한다. 토요일에는 전체 약국의 절반이 넘는 53%가 문을 열고 일요일에는 15%가 운영한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복지부는 향후 의약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보완 방안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로 가능했다.

또 의료 취약지 기준을 기존 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취약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을 의미하며, 이번 확대 적용 지역은 취약도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 대상을 넓혔지만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함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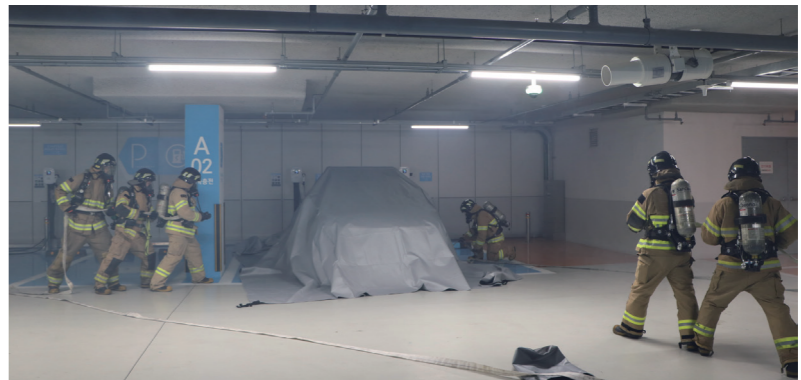
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대면 진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수가가 지급되고, 향후 환자가 실제로 내원을 하면 대면 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에 대해 집중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 동부소방, 전기차 화재대응 특별소방훈련 실시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전기차량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지하주차장에서 특별 소방훈련을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다. 이슬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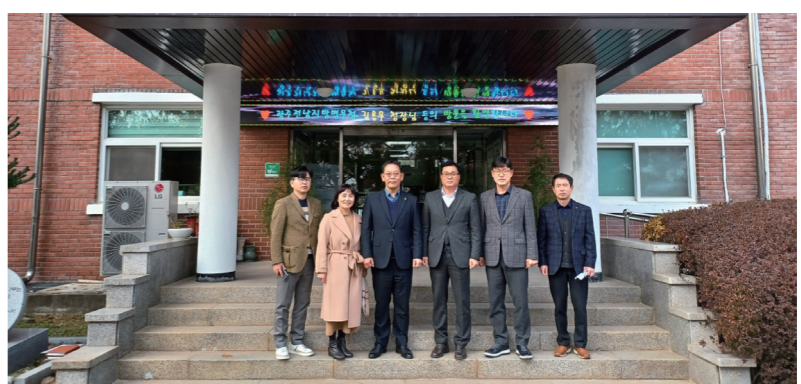
광주 남부소방, 2024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지난달 27일 2024년 화재예방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장흥경찰,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장흥경찰서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대덕읍 노인복지회관을 방문, 어르신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광주전남병무청, 고령정보산업학교 정책현장 방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28일 고령정보산업학교(광주 소년원) 방문하여 '찾아가는 정책 현장 소통행사'를 실시하였다. 김수권기자



완도해경, 신임경찰 14명 최일선 현장 첫걸음 내딛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달 28일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247기 신임 해양경찰관들의 임용식을 가지고 최일선 현장으로 당당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여수해경,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 공모전 공무원 부문 '동상' 수상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2023년 제6회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 공모전"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장에 적용한 정탁수 경위가 공무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주시민 10명 중 9명 "교권침해 심각... 인성교육 소홀 때문"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설문

광주지역 시민 10명 중 9명은 교권침해가 심각하며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시민 700명 중 651명(93%)은 '수업 방해·교사 조롱·폭행'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225명(32.1%)이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을 지목했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인권'에 165명(23.6%), '자녀 과잉보호' 164명(23.4%), '법적 제도의 미비' 143명(20.4%) 순이다.

가장 큰 문제인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334

명(44.7%)이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을 제시했으며 '학생들의 폭언과 수업방해' 281명(40.1%), '언론 등의 지나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50명(7.1%)이 응답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243명(34.7%)이 '교권침해 교사를 위한 변호사 등의 법률지원'을 제시했다.

또 '가정 훈육 등을 위한 격리조치'에 응답한 시민은 207명(29.65)이었으며 '학생 보호자 호출 및 귀가조치' 162명(23.1%), '교사 휴식 및 병원진료 지원' 75명(10.7%)이다.

교권침해 학생이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637명(91%)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63명(9%)이다.

교권 침해 추가 처분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교

육 및 심리치료'가 248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전학' 182명(28.6%), '출석정지' 108명(17%), '학교봉사활동' 74명(11.6%), 학교급제 13명(2%) 순이다.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498명(71.1%)이 '보장받고 있다'에 응답했으며 202명(28.9%)는 '보장받고 있지 않다'에 답변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610명(87.1%)이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에는 90명(12.9%)로 집계됐다.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광주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원인과 사례가 다양한 만큼 학생인권 측면과 조화를 이루는 대책과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슬비기자



겨울엔 '눈오리' 3일 오전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습지에서 어린이 눈오리를 만들고 있다.

영암서 말다툼 끝에 외국인 동료 흥기 살해 30대 검거

영암의 한 외국인 숙소에서 동료를 흥기로 찢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서는 동료를 흥기로 찢은 혐의(살인)로 스리랑카 국적의 A(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B(30)씨를 흥기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동료들과 가진 행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며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5명이 거주하는 숙소로 이동했으며 말다툼을 지속하던 중 A씨가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소란스러움을 느낀 외국인 노동자들이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주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8월 국내 기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했으며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다툼던 동기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암=조대호기자